

GGM 누적 생산 20만대...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완성차 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GGM은 2021년 9월 캐스퍼 제1호차 양산을 시작해 2023년 10월 10만대를 달성했다. 2024년 7월부터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본격 생산하고, 10월에는 전기차 수출명 '인스터'를 해외시장에 선보이며 양산 시작 약 4년여 만에 누적 생산 20만대를 기록했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캐스퍼 20만대 양산 기념 근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어 GGM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GGM 윤몽현 대표이사과 임직원, 임한서 상생협의회 의장, 상생협의회 위원인 김진태 GGM 노조지회장을 비롯한 상생협의회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성과를 축하했다.

GGM의 20만대 달성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캐스퍼(인스터)는 합리적 가격, 실용적 디자인, 친환경 기준 충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66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메이드 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GGM은 설립 당시부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재까지 682명이 고용돼 있으며, 향후 2000명 규모의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완성차 생산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업체



강기정광주시장이8일오전시청비즈니스룸에서열린광주글로벌모터스캐스퍼20만대양산기념근무유공자표창식에참석해축하인사를하고있다. /광주시제공

회사 설립 6년만의 쾌거... 일자리 창출·경제파급효과 확대

66개국 진출... 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성장 발판 마련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 자리매김

매출 증대, 연관 산업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GM은 4년 만에 20만대 양산 달성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 불황과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뚫고 국내 제1호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GGM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냈다"며 "GGM

은 목표생산량 추가 달성과 차종 다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1등 공신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한 "노동의 가치와 상생의 가치는 모두 소중하다. 시민들과 함께해 온 2018년 이후 우리의 약속인 상생의 가

치를 키워가면서 노동의 가치 싸이트도 계속 키워가자"며 "이처럼 작은 상생의 시작이 성과를 보여간다면 노동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GGM은 앞으로 생산역량을 더욱 강화해 연간 20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자동차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시는 GGM이 글로벌 전문 완성차 공장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소득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시, 전국 최초 '건설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 도입

레미콘·아스콘 부실공사 차단... 안전위험 해소 선제조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을 도입,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부실한 원자재 품질관리로 인한 시민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미비,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의 설계수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품질관리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다. 광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품질관리의 출발점인 원자재 생산공장 점검을 위한 기동반을 구성, 지난 8월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동반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공사현장과 계약 납품 생산 중인 25개소(레미콘 16개소, 아스콘 9개소) 중 7개소(레미콘 5개소, 아스콘 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민간합동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관계 공무원과 품질혁신 기획단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생산시

설 운영, 품질관리 실태, 원자재 반입 기록, 승인받은 혼화제 사용 여부, 자체 시험검사 현황 등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범 점검 결과, 생산운영 전반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골재 야적장 배수시설과 외부 저장시설(우수빙수 보호시설 등)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광주시는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한 부분은 상시 기동반 운영을 통해 개선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2026년부터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을 연중 상시 가동해 건설자재와 현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 '기업탄소액션' 확대 추진

14개사 신규 참여... 작년 12개사 온실가스 1118t 감축 성과

광주시가 지역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기업탄소액션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기업탄소액션'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광주시가 국가배출권거래시장(ETS)을 준용해 마련한 배출권거래시스템에서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업탄소액션 사업에 올해 신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4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참여기업은 코비코㈜, 지금강㈜, ㈜태봉, 세방산업㈜, ㈜성진글로벌, ㈜파비나인, ㈜디엔코, 대한공조㈜, ㈜씨.피코리아, 태성산업㈜, 무등스 크린㈜, ㈜나눔테크, ㈜은혜기업, ㈜무등기업 등 14개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기업을 포함해 총 24개 기업이 올해 기업탄소액션 사업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참여기업 12개사의

자발적 노력으로 총 1118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참여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2022년 평균 배출량 대비 11% 이상 자발적으로 줄여야 하며, 감축분은 분기별 모의거래로 처리된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업탄소액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참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을 담당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과 더불어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감축 노력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시가 선도적인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협약식에서 '2024년 기업탄소액션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그린테크㈜ ▲오택캐리어㈜ ▲아르네코리아㈜ 등 3개 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표창과 현판을 수여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SW·AI 코딩 로봇경진대회 참가자 17일까지 모집

초·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접수...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

전라남도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전남 SW·AI 코딩 로봇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경진대회는 초등부·중등부·고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주제는 ▲초·중등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로봇 ▲고등

부-다양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스마트 자율주행이다.

참가 희망자는 학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이 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대회 포스터에 안내된 무니정보(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는 연구 프로젝트 발표와 직접 제작한 로봇을 활용한 로봇경기로 평가된다. 참가자들은 사전 연수를 받은 뒤, 10월

30~31일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에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3을 선정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심상안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을 추진해 도민 8만 8천여 명 교육, 일자리 238개 창출, 전문 강사 247명



양성, 특화 커리큘럼 60건 개발 등 성과를 거뒀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 가을